

우크라이나 중재 중국에 푸틴 “논의할 것”

중 ‘평화 중재자’ 이미지 의도 미 “우크라 주권 존중 압박하라” 우크라 “중재 영향력 행사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국민 방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전 평화 중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중재 구상이 주로 러시아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는 미국은 러시아의 철군 없이는 이번 중-러 정상회담으로 발전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20일(현지시간) AF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민 방문 첫 날인 이날 크렘린에서 진행된 일대일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중재를 위한 중국의 제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당신의 제안에 주의를 깊게 검토했다”며 “우리는 중국의 우크라이나 관련 계획을 존중하며 이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국이 같거나 비슷한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각국의 번영을 위해 노력했고,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푸틴 대통령이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제안’은 전쟁 발발 1년이 되는 지난달 24일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가리킨다.

중국은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입장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직접 대화 재개와 휴전

모색,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석유 금수 등 제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중국은 이 문서에서 각국의 주권과 독립, 영토 완전성 보장, 유엔 헌장 취지 준수, 냉전사고 버리기,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등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중국의 이러한 제안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균형 잡힌 입장과 역사적 배경·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 평가하며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평화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를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평화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의 이 ‘우크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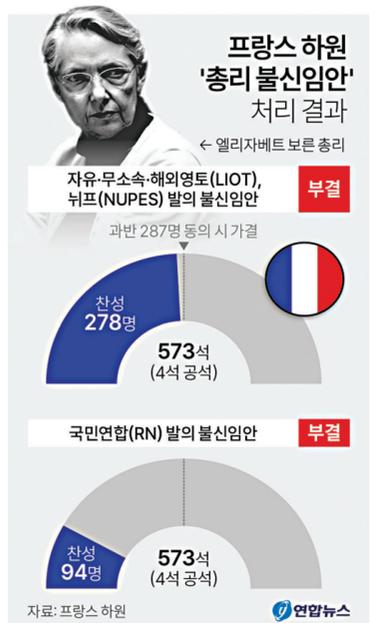
나 해법’이 러시아의 점령지 철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 친 러시아적이라며 경계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번 중재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철군 없는 평화 구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 남겨 두는 휴전 요구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불법 점령을 인정하고 러시아가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한 뒤 유리한 시점에 전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중재 제안에 대해 “모든 국가의 영토 및 주권 존중이 핵심 요점으로 우리는 시 주석이 이 요점을 옹호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유엔 헌장에 따라 러시아 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프랑스 내각 불신임 부결 제2의 노란조끼 가능성도

프랑스 정부가 의회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반발해 야권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20일(현지시간) 모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가까스로 급한 불을 껐다.

이로써 마크롱 대통령은 비록 야권과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한 연금 개혁안이 무효가 되고 정부가 해산되는 것은 일단 모면했다.

다만, 위기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민심의 분노는 사그라들 기미가 없으며 오히려 더 타오를 조짐이다. 이날 하원에서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부결과 동시에 연금 개혁 법안이 통과되자 수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곳곳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잇따랐다. 파리 중심가에서는 “마크롱 사퇴!”를 외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가 지난 2주간 이어진 쓰레기 수거업체의 파업으로 거리 곳곳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는 등 시위가 과열 양상을 띠자,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동원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이날 시위로 파리에서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급했다.

프랑스 노조 지도자들은 이날 의회 투표로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마크롱의 연금 개혁법이 통과됐지만, 이를 뒤집기 위한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주요 노조들은 오는 23일 연금 개혁법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펼치며 마크롱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강경한 노조로 꼽히는 CGT는 연금개혁법이 의회를 통과했어도 “노동자들의 결의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며 국민적 지지를 앞세워 향후 강성 투쟁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북, 화성-17형 실전배치 다탄두 미사일 발전 가능” 38노스 발간 보고서

북한이 최근 쏘아올린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사실상 실전에 배치된 상태일 수 있으며, 향후 다탄두 미사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0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화성-17) 발사에 대한 북한의 묘사는 북한이 화성-17을 실전 배치했다고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한일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16일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7형 ICBM 1발을 발사했고, 이후 관련 소식을 전하는 조선중앙통신이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의 임전태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

여태껏 발사된 화성-17이 모두 평양 순안비행장에 있는 동일한 특수시설에서 쏘아 올려졌기에 일각에선 야전 운용 단계가 아닐 것이라 추측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38노스는 “미사일 개발 관행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차이점을 보여 온 것처럼 북한에는 ‘실전배치’를 위해 (야전 운용 시험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없는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북한은 순안 시설을 화성-17이 배치된 작전기지로 간주하고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지금껏 파악된 정보들에 비춰볼 때 “완전히 장전된 11축 이동형 발사대의 크기와 무게를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도 화성-17이 발사될 수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스리랑카 콜롬보 노동자 20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한 시장에서 노동자가 트럭에서 쌀 포대를 내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사회가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스리랑카에 4년에 걸쳐 약 30억달러(약 3조9,20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 군사전문가 “우크라이나군, 장갑차가 더 절실”

최근 몇개월 동안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에서 탱크(전차)와 전투기가 중심에 있었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보병전투차(전투장갑차)가 더 절실해 필요하다고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P는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격전지 동부 돈바스 지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면담하고 돌아온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프란츠 스테판 가디 선임연구원 기

고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를 지원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독일제 전차 지원도 허용하기로 한 조치는 영국이 첼린저 2 전차를 제공하기로 한 결정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불철 공세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뒤이어 서방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가디 연구원은 전차나 전투기보다 전투장갑차(IFV)가 전방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

인들의 희망 무기 목록 맨 위에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 기계화여단의 한 장교가 자신에게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전투장갑차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1950년대 후반 서독과 소련에서 처음 개발된 전투장갑차는 병력수송장갑차와 전차를 결합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전차보다 무장과 장갑 면에서 더 가볍지만, 전장에서 전차와 함께 이동하면서 적의 보병과 전차로부터 아군 전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정식

'다미정'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의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